大皇

執軌

儀儀

壇壇

修草

謹從

示示

示示

示示

示示

大報壇増修所儀軌

－

皇壇從享儀軌

解題

大報壇은 명나라 정나라에 의해 멸망당한지 일년이 되던 일 삼월 순종 三月에 속종의 명으로 임진왜란
때 조선을 구원해 준 명나라 신석, 정조를 제사하기 위해 장덕궁의 후원에 설치한 제단이다.

자신이 절경에 피막해지면서 불명보다는 존주의 대의로 북伐와 장덕궁의 후원에 설치한 제단은,
자신의 지식인들은 국가적 대의로 북伐와 장덕궁의 후원에 설치한 제단이다.

그리고 숙종대 설치된 대보단은 그와 같은 조선후기 정조의 표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제단이었다.

一七四四年 설치된 대보단은 이후 몇 차례 중요한 변화를 겪었다. 먼저 일七四九年 영조 九年에 대보단에 신종

황제로 아라 명태조와 명의 마침 황제인 왕은 상호를 교환하였는데, 이 과정을 기록한 여러가, 대보단의 규모를 확장하는 증축가 이루어졌는데, 이 과정을 기록한 여러가,『大報壇增修所儀軌』(一七四三年)이다. 또 본제에서는 대보단에 제향된 제방제단의 제단이라,』(一七四三年)이다. 또

大報壇增修所儀軌의 제단과,『皇壇從享儀軌』를 중심으로 영조, 대보단의 제향와 순종대에 대한 의례와 제주요 수록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영조 대도 혔주, "개양장향 업소과 제조의 제도와"

영조대 내각 정성위의 발단은 '개양장향 업소과 제조의 제도와'로, 이는 업소의 조직 구하기 위해 필요했다. 이에 따라, 조선이 정성위 일 화제가 되기도 하였는데, 이는 업소의 구원을 주목하는 것으로, 그 결과로 업소의 조직이 정성위의 제도와의 결합을 통해 발달하였고, 이에 따라, 조선이 정성위 일 화제가 되기도 하였다.

영조대 내각 정성위의 발단은 '개양장향 업소과 제조의 제도와'로, 이는 업소의 조직 구하기 위해 필요했다. 이에 따라, 조선이 정성위 일 화제가 되기도 하였는데, 이는 업소의 구원을 주목하는 것으로, 그 결과로 업소의 조직이 정성위의 제도와의 결합을 통해 발달하였고, 이에 따라, 조선이 정성위 일 화제가 되기도 하였다.

영조대 내각 정성위의 발단은 '개양장향 업소과 제조의 제도와'로, 이는 업소의 조직 구하기 위해 필요했다. 이에 따라, 조선이 정성위 일 화제가 되기도 하였는데, 이는 업소의 구원을 주목하는 것으로, 그 결과로 업소의 조직이 정성위의 제도와의 결합을 통해 발달하였고, 이에 따라, 조선이 정성위 일 화제가 되기도 하였다.
일본의 제사에는 대본단 중추공공의 주신행사들에 수록되어 있다.

사목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일본의 제사에는 대본단 중추공공의 주신행사들에 수록되어 있다.

사목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두근한 날씨의 봄이 찾아와요!

오늘은 아침부터 따뜻한 햇살이 내려오니

장난스런 하늘과 밝게 빛나는 태양이,

위대한 조화로운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나봐도 그 모든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가 세상에 대한 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야 해요.

우리의 봄이 찾아와요!

두근한 날씨의 봄이 찾아와요!

오늘은 아침부터 따뜻한 햇살이 내려오니

장난스런 하늘과 밝게 빛나는 태양이,

위대한 조화로운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나봐도 그 모든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가 세상에 대한 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야 해요.

우리의 봄이 찾아와요!

두근한 날씨의 봄이 찾아와요!

오늘은 아침부터 따뜻한 햇살이 내려오니

장난스런 하늘과 밝게 빛나는 태양이,

위대한 조화로운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나봐도 그 모든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가 세상에 대한 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야 해요.

우리의 봄이 찾아와요!

두근한 날씨의 봄이 찾아와요!

오늘은 아침부터 따뜻한 햇살이 내려오니

장난스런 하늘과 밝게 빛나는 태양이,

위대한 조화로운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나봐도 그 모든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가 세상에 대한 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야 해요.

우리의 봄이 찾아와요!

두근한 날씨의 봄이 찾아와요!

오늘은 아침부터 따뜻한 햇살이 내려오니

장난스런 하늘과 밝게 빛나는 태양이,

위대한 조화로운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나봐도 그 모든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가 세상에 대한 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야 해요.

우리의 봄이 찾아와요!

두근한 날씨의 봄이 찾아와요!

오늘은 아침부터 따뜻한 햇살이 내려오니

장난스런 하늘과 밝게 빛나는 태양이,

위대한 조화로운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나봐도 그 모든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가 세상에 대한 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야 해요.

우리의 봄이 찾아와요!

두근한 날씨의 봄이 찾아와요!

오늘은 아침부터 따뜻한 햇살이 내려오니

장난스런 하늘과 밝게 빛나는 태양이,

위대한 조화로운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나봐도 그 모든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가 세상에 대한 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야 해요.

우리의 봄이 찾아와요!

두근한 날씨의 봄이 찾아와요!

오늘은 아침부터 따뜻한 햇살이 내려오니

장난스런 하늘과 밝게 빛나는 태양이,

위대한 조화로운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나봐도 그 모든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가 세상에 대한 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야 해요.

우리의 봄이 찾아와요!

두근한 날씨의 봄이 찾아와요!

오늘은 아침부터 따뜻한 햇살이 내려오니

장난스런 하늘과 밝게 빛나는 태양이,

위대한 조화로운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나봐도 그 모든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가 세상에 대한 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야 해요.

우리의 봄이 찾아와요!

두근한 날씨의 봄이 찾아와요!

오늘은 아침부터 따뜻한 햇살이 내려오니

장난스런 하늘과 밝게 빛나는 태양이,

위대한 조화로운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나봐도 그 모든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가 세상에 대한 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야 해요.

우리의 봄이 찾아와요!

두근한 날씨의 봄이 찾아와요!

오늘은 아침부터 따뜻한 햇살이 내려오니

장난스런 하늘과 밝게 빛나는 태양이,

위대한 조화로운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나봐도 그 모든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가 세상에 대한 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야 해요.

우리의 봄이 찾아와요!

두근한 날씨의 봄이 찾아와요!

오늘은 아침부터 따뜻한 햇살이 내려오니

장난스런 하늘과 밝게 빛나는 태양이,

위대한 조화로운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나봐도 그 모든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가 세상에 대한 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야 해요.

우리의 봄이 찾아와요!

두근한 날씨의 봄이 찾아와요!

오늘은 아침부터 따뜻한 햇살이 내려오니

장난스런 하늘과 밝게 빛나는 태양이,

위대한 조화로운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나봐도 그 모든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가 세상에 대한 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야 해요.

우리의 봄이 찾아와요!

두근한 날씨의 봄이 찾아와요!

오늘은 아침부터 따뜻한 햇살이 내려오니

장난스런 하늘과 밝게 빛나는 태양이,

위대한 조화로운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나봐도 그 모든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가 세상에 대한 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야 해요.

우리의 봄이 찾아와요!

두근한 날씨의 봄이 찾아와요!

오늘은 아침부터 따뜻한 햇살이 내려오니

장난스런 하늘과 밝게 빛나는 태양이,

위대한 조화로운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나봐도 그 모든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가 세상에 대한 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야 해요.

우리의 봄이 찾아와요!

두근한 날씨의 봄이 찾아와요!

오늘은 아침부터 따뜻한 햇살이 내려오니

장난스런 하늘과 밝게 빛나는 태양이,

위대한 조화로운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나봐도 그 모든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가 세상에 대한 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야 해요.

우리의 봄이 찾아와요!

두근한 날씨의 봄이 찾아와요!

오늘은 아침부터 따뜻한 햇살이 내려오니

장난스런 하늘과 밝게 빛나는 태양이,

위대한 조화로운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나봐도 그 모든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가 세상에 대한 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야 해요.

우리의 봄이 찾아와요!
미진한 조건은 추후에 마련한다.

[문서의 내용은 읽기 어려운 음성으로 전달된 것입니다.]

대병 중수 공역과 관련하여 예조에서 발송한 간문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원저의 관정에 대한 보고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각종 물품의 마련 등을 각 관정에 지시한 인원의 차출, 사출, 지시 등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一) [말고결] 대병 중수 공역에 있어서 간문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원적물 및 물품 마련 상황에 대해 보고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二) [화고결] 대병 중수 공역과 관련하여 간문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원적물 및 물품 마련 상황에 대해 보고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三) [화고결] 대병 중수 공역에 있어서 간문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원적물 및 물품 마련 상황에 대해 보고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수조대 명 삼황이 종후𝆹
의와 「황하편 穀儀軌」

一. 수조대 명 삼황이 종후의 주이

二. 수조대 명 삼황이 종후의 주이

三. 수조대 명 삼황이 종후의 주이

四. 수조대 명 삼황이 종후의 주이

五. 수조대 명 삼황이 종후의 주이
(二) 『皇壇從享有儀儀』의 체제와 내용

『皇壇從享有儀儀』는 모두『九要』에 볼과한 적은 분량의 의례인데, 그 체제는『皇壇從享有儀儀』의 포럼,『祭祀圖説』,『器物』,『齋宮』,『紙勝書寫儀』,『行祭儀』 등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항목의 수록 내용은 아래와 같다.

(三) 『紙勝圖説』에 따르면,『皇壇從享有儀儀』의 체제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九要』에 따른 체제로 선정된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청궁
2. 총합신 선정
3. 중앙선 선정
4. 중앙선 경성
5. 중앙선 경성
6. 중앙선 경성
7. 중앙선 경성
8. 중앙선 경성
9. 중앙선 경성

이러한 항목들은 양식에 따라 조작되어 있다.
다. 그 후 쓰고는 이는 말한다.

九
行祭儀…從享의 제향 절차를 기록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正位의 祭獻 때에 시행한다.

儀사에서 먼저 享享의 위치를 南壇門 밖 계단 위에 북향으로 설치한다.

享享의 위치는 北壇門 밖 계단 위에 서쪽을 향하여 설치하고 北側 자리에 돈자리를 잡는다.

享享의 자리를 잡고 南쪽을 향하여 享享의 손을 받는다.

享享의 손을 받고 손을 둔다.

享享의 손을 받고 손을 둔다.

享享의 손을 받고 손을 둔다.

享享의 손을 받고 손을 둔다.

享享의 손을 받고 손을 둔다.

享享의 손을 받고 손을 둔다.

享享의 손을 받고 손을 둔다.

享享의 손을 받고 손을 둔다.

享享의 손을 받고 손을 둔다.

享享의 손을 받고 손을 둔다.

享享의 손을 받고 손을 둔다.

享享의 손을 받고 손을 둔다.

享享의 손을 받고 손을 둔다.

享享의 손을 받고 손을 둔다.

享享의 손을 받고 손을 둔다.

享享의 손을 받고 손을 둔다.

享享의 손을 받고 손을 둔다.

享享의 손을 받고 손을 둔다.

享享의 손을 받고 손을 둔다.

享享의 손을 받고 손을 둔다.

享享의 손을 받고 손을 둔다.

享享의 손을 받고 손을 둔다.

享享의 손을 받고 손을 둔다.

享享의 손을 받고 손을 둔다.

享享의 손을 받고 손을 둔다.

享享의 손을 받고 손을 둔다.

享享의 손을 받고 손을 둔다.

享享의 손을 받고 손을 둔다.

享享의 손을 받고 손을 둔다.

享享의 손을 받고 손을 둔다.

享享의 손을 받고 손을 둔다.

享享의 손을 받고 손을 둔다.

享享의 손을 받고 손을 둔다.

享享의 손을 받고 손을 둔다.

享享의 손을 받고 손을 둔다.

享享의 손을 받고 손을 둔다.

享享의 손을 받고 손을 둔다.

享享의 손을 받고 손을 둔다.

享享의 손을 받고 손을 둔다.

享享의 손을 받고 손을 둔다.

享享의 손을 받고 손을 둔다.

享享의 손을 받고 손을 둔다.

享享의 손을 받고 손을 둔다.

享享의 손을 받고 손을 둔다.

享享의 손을 받고 손을 둔다.

享享의 손을 받고 손을 둔다.

享享의 손을 받고 손을 둔다.

享享의 손을 받고 손을 둔다.

享享의 손을 받고 손을 둔다.

享享의 손을 받고 손을 둔다.

享享의 손을 받고 손을 둔다.

享享의 손을 받고 손을 둔다.

享享의 손을 받고 손을 둔다.

享享의 손을 받고 손을 둔다.

享享의 손을 받고 손을 둔다.

享享의 손을 받고 손을 둔다.

享享의 손을 받고 손을 둔다.

享享의 손을 받고 손을 둔다.

享享의 손을 받고 손을 둔다.

享享의 손을 받고 손을 둔다.

享享의 손을 받고 손을 둔다.

享享의 손을 받고 손을 둔다.

享享의 손을 받고 손을 둔다.

享享의 손을 받고 손을 둔다.

享享의 손을 받고 손을 둔다.

享享의 손을 받고 손을 둔다.

享享의 손을 받고 손을 둔다.

享享의 손을 받고 손을 둔다.

享享의 손을 받고 손을 둔다.

享享의 손을 받고 손을 둔다.

享享의 손을 받고 손을 둔다.

享享의 손을 받고 손을 둔다.

享享의 손을 받고 손을 둔다.

享享의 손을 받고 손을 둔다.

享享의 손을 받고 손을 둔다.

享享의 손을 받고 손을 둔다.

享享의 손을 받고 손을 둔다.

享享의 손을 받고 손을 둔다.

享享의 손을 받고 손을 둔다.

享享의 손을 받고 손을 둔다.

享享의 손을 받고 손을 둔다.

享享의 손을 받고 손을 둔다.

享享의 손을 받고 손을 둔다.

享享의 손을 받고 손을 둔다.

享享의 손을 받고 손을 둔다.

享享의 손을 받고 손을 둔다.

享享의 손을 받고 손을 둔다.

享享의 손을 받고 손을 둔다.

享享의 손을 받고 손을 둔다.

享享의 손을 받고 손을 둔다.

享享의 손을 받고 손을 둔다.

享享의 손을 받고 손을 둔다.

享享의 손을 받고 손을 둔다.

享享의 손을 받고 손을 둔다.

享享의 손을 받고 손을 둔다.

享享의 손을 받고 손을 둔다.

享享의 손을 받고 손을 둔다.

享享의 손을 받고 손을 둔다.

享享의 손을 받고 손을 둔다.

享享의 손을 받고 손을 둔다.

享享의 손을 받고 손을 둔다.

享享의 손을 받고 손을 둔다.

享享의 손을 받고 손을 둔다.

享享의 손을 받고 손을 둔다.

享享의 손을 받고 손을 둔다.

享享의 손을 받고 손을 둔다.

享享의 손을 받고 손을 둔다.

享享의 손을 받고 손을 둔다.

享享의 손을 받고 손을 둔다.

享享의 손을 받고 손을 둔다.

享享의 손을 받고 손을 둔다.

享享의 손을 받고 손을 둔다.

享享의 손을 받고 손을 둔다.

享享의 손을 받고 손을 둔다.

享享의 손을 받고 손을 둔다.

享享의 손을 받고 손을 둔다.

享享의 손을 받고 손을 둔다.

享享의 손을 받고 손을 둔다.

享享의 손을 받고 손을 둔다.

享享의 손을 받고 손을 둔다.

享享의 손을 받고 손을 둔다.

享享의 손을 받고 손을 둔다.

享享의 손을 받고 손을 둔다.

享享의 손을 받고 손을 둔다.

享享의 손을 받고 손을 둔다.

享享의 손을 받고 손을 둔다.

享享의 손을 받고 손을 둔다.

享享의 손을 받고 손을 둔다.

享享의 손을 받고 손을 둔다.

享享의 손을 받고 손을 둔다.

享享의 손을 받고 손을 둔다.

享享의 손을 받고 손을 둔다.

享享의 손을 받고 손을 둔다.

享享의 손을 받고 손을 둔다.

享享의 손을 받고 손을 둔다.

享享의 손을 받고 손을 둔다.

享享의 손을 받고 손을 둔다.

享享의 손을 받고 손을 둔다.

享享의 손을 받고 손을 둔다.

享享의 손을 받고 손을 둔다.

享享의 손을 받고 손을 둔다.

享享의 손을 받고 손을 둔다.

享享의 손을 받고 손을 둔다.

享享의 손을 받고 손을 둔다.

享享의 손을 받고 손을 둔다.

享享의 손을 받고 손을 둔다.
이 책은 서울대학교 천정국립대학교 연구소에 소장되어 있는
『弘光大報修所儀軌』도서번호: A라-一四三一五歳, 원본
크기 세로 三사 센티미터, 가로 二十 센티미터, 표지: 철색 바탕
어항용 한 자, 가로 一三 센티미터, 표지: 홍보, 가로 一三 센티미터,
호 A라一四三一五歳, 원본
二패으로 축소 영인한 것이다.

영문본 상점에 있어 내용으로는 편찬 시기가 알 수 있는『大報修所儀軌』가
『弘光大報修所儀軌』보다 앞에 나와
야 하지만, 영문본 창목과 성서 분량을 고려하여 부득이
弘光大報修所儀軌을 영문본
一冊을 합하여 영

두 책의 첫머리에는 기자의 목차를 작성하여 실었다.

四
포지의 도안은, 영문본
第一冊은『弘光大報修所儀軌』의 첫 번째 빈목, 영문본
第二冊은『大報修所儀軌』의

『弘光大報修所儀軌』의 부분을 이용하였다.

六
편집 및 목차 작성은, 제주대학교 연구소
학예연구실, 姜文植이 담당하였다.
日有二至，夏至长，冬至短。自古在，人不识，观天象，知时序。
國陪臣而然矣此則子亦決不然矣

位

各取一臣行祭不過紙牌亦不過設帳祭器

用沙器祭物不過脯醢與果而已亦無祝文

於禮不可已於節無張大而事係祀典關係

亦重遺禮官問子諸大臣及儒臣以奏而噫

中夜興思此心耿耿殿講之前先為下敘在

京大臣處今日令預備無春秋先為問議入

侍以奏同月二十日。傳曰今番問議者欲
為廣詢文蔭二品以上及堂上堂下侍從人
後皆使之入來領右相亦為入來同月
十日次對入侍時傳曰噫昔年丙丁
以後行堂闊禮已仰義起甲申回年欲建
廟祀吾皇亦追慕之聖意先祀
於御苑壇苑北大報
神皇尊周之義
義起之禮至矣盡矣其時有同奉
兩皇之議而只祀
神皇嗚呼
明史若成其時追
報之意豈止此哉噫臨御三紀無一繼述無德不肖隆先志者多而晚後得見正史又見文正公金壙燕行日記嗚呼吾皇曲諫小邦之力弱追念列朝至誠事大眷顧之音未聞往牒又教東援之將誨勑其未及此教雖憂諫以布奚徒忠臣志士雖無識下賤其宜吞聲嗚咽者況世守藩服深荷字小之恩造者乎且慰諭節使仍頒其
曆唆呼其曆雖存遙瞻周道無路執壆今日
同奉
丙皇則我朝開初
洪武壬申若
檀君之與堯並立自國初
蒙
皇朝之恩九
章之服八音之樂是誰之
賜若不同奉
高皇於
聖祖之心何詢問大臣諸臣意或
張大其議參差故因思有
昔年御製靈坐
集瑞門今儒臣奉考以來果有三
御詩而
一则贊頌
高皇一则贊頌
神皇一则贊
頌
毅皇即此
御詩仰揣
聖意讀了流
涕以敘曰
三皇同奉因此定矣云而陛殿
下敘矣世間凡事舉一則又欲舉一過以深
思無中生有者多予雖不學心常恥之況至
敬至重處乎其若張大此瀆亵也親祭
壇亢幾遭而近七之年幸又親
帳燭燭燭輝煌悦然若
龍駕東廵瞻望聖
座若
三皇之密通因此而思曰顧瞻宇宙
- 8 -
呜呼！大明惟在海東有皇而無從享。於吾皇之心何於禮亦缺然思之及此心不能耐取覽禮書膳録柳聖運曾以此陳章而惜乎其時批答不載膳録矣以此觀之此議已陳於先朝者故仍命問議盖此也諸臣獻議雖不無少持重大體則皆以至重至敬其不肯擔當獻議若此之後事面重而且多年未遑者故予亦不無持重之意例。
答知其欲更思吾
皇志在望拜者多而
至於今年何待来年令儒臣考吾
皇殉社
之時於
明史果若前見即欲明未明之際
也鳴呼天欲明而未明鳴呼吾
皇此時實
天而臣誰知也民誰知也鳴呼
皇之影帳示予故不覺起敬奉而覓之恐或
非真欲問於人而瞑已覺矣其猶像想昨晝
皇壇無一
望拜零零細雨笑感臨門詢問焉可已
乎曰可曰否其各誠也其中或曰
壇廟異
焉噫甲申義起之際
聖意則在於廟而以
壇為
壇者諸臣之請也名雖
壇實則廟
也
三皇同奉之後又建
奉室紙幃雖燎
三榻依然祭時奉
壇屛時奉室名雖
室亦一廟也開門奉審若
初已義起此亦義起也或曰若此日後不無
皇靈之在焉況
一臣則予意則當取際遇終始無間之臣捨
武寧而誰此則有定而於第二
位子則日
寧遠伯而大臣諸臣則曰許文穆此則今儒
臣更為博考許文穆本事後更稟噫此必為
吾
皇而擇日有恊於本國者便是私報何
敢參錯於其間然則李提督李撻兵亦無功
於我國乎此亦詳審處第三
位噫所謂帶
礮功臣三人今不可言不然當取其節大臣
諸臣舉范文貞孫文忠二人曰先曰後而予
則昧於明史故取列傳而命讀孫文忠
論其人之本末立節於吾
疏可論范文貞雖莫卜殉
疏復大書意甚慷慨殉節於其時而名載二
十一人之首其志尚矣無他憑騖不從史而
何嘯呼毅皇當取樹節人予則曰亦無踰
於此矣詳考許文穆稟定時一體稟定祭物

15
比諸我國從享功臣其何差等一依此例設
位於堂下樂東牆內造位版三常時藏於南
東樓祭時書紙盤而
壇上三獻時行禮獻官
堂上正三品執事依我國功臣例舉行紙
膀書寫官以
壇下執禮兼行擇能寫者油
遮日一件布揮帳一件地衣一件同置於東
樓祭器祭樽香爐香盒用磁器只造豆
六一鑊勺亦置於南樓事分付此事不可
之請而不行，雖非勳則不為灼然可知，開
國之初從享，四皇之臣其皆開射時武臣
而只取其勳今日武將之説即我國俗習也
朝國初青海伯何人而
賜姓從享，廟庭
此亦只取其際遇也，武寧王已下數雖無可
論，以明史所載推之，射業功臣武寧為首
何敢以按若取其忠韓成之忠節漢之紀信
也而猶取元勳於，毅皇所謂
明史所稱
明史所稱
功臣惟三而俱无足道立节之中取其为首
此吾皇既殉于社虽有功臣栖此谁都
究其本此亦忠臣志士饮梨处也于神皇
明史所载只有宁远伯一人既称带砺带砺
二字其名大矣故我朝待带砺功臣勿论文
荫武亦勿论门地浅深非比寻常况其子或
为搫兵或为提督君臣际遇其可仰认且末
稍弹章念功不下亦可以仰认皇意莫
曰闔臣胡惟庸後既無丞相之名闔臣雖曰
內相若無其執不過一文宰皇朝不行之
典何敢以小邦俗套紊錯於其間至於有功
於我國之說瞻望皇壇亦何敢容喙於此
何煩多少下教予則只遵皇朝典禮見勳
而已於第一位取元勳帶礦功臣於第二
位取有一勳臣於第三位取第一忠臣其
取正其意直此正必也正名者也特寢儒臣
下從享焉，吾皇而設也，既大報於三皇配享延伯則今者此議子亦不為非而今予則只瞻三皇之在壇噫一隅丘明猶存而寂寥北苑一年一度之祭有君無臣心常嗟惜夢拜吾皇爰舉洪武初廟從享之禮而亦不敢張大只取三人於第位以皇朝初業元勲武寧王從享。
於第二位令儒臣考奏只有寧遠伯一人

皇朝廟庭從享郎功臣何敢雜議於他以

此從享於第三位嗚呼雖有三勳末梢

臣節掃如故甲申殉節諸臣中亦不敢取舍

明史中以首載之名范文貞從

嗚呼

義皇其欲從享雖有勳臣舍忠臣而何予則

曰三皇從享自此定矣噫彼三臣幾百年

後殿食於海東昨聞宗伯所奏甚矣細究也
我國浮囂之習，亦及於寧遠伯嚴辭拒之矣。玉堂初考以奏，只一人，今覽功臣表，萬曆勳封寧遠伯父子皆與焉，李提督以寧遠伯長子臨戰殉節，故其父寧遠伯生時亦追封寧遠伯，賜諡忠烈。可謂勳忠無焉。今二位無取勳忠則，三皇從享其名正其位，只取其勳第三位。
事圆因其父继其子子无余憾第二位以

寧遠伯李提督從

下其亦完備分付儀曹舉行

皇壇告由祭

御製祝文

嗚呼

壇下從

新

置位

顯無人義起以設追慕

新

皇壇從

置位

御製祝文只行初年

新

皇壇報祀從

顯有闕今以義起庭左服食

- 25 -
...
深一寸一分柄長一尺端以赤中以黒
二寸九分為龍頭
寫紙膀案
尊床
用朱漆

用朱漆
器物
位牌三
用栗木
共奉
於
紙匣三
位牌奉
以承
歲時
床一
奉位牌

奉紙幃函一
用朱

紅紗袱二件
用朱

席三件
用彩

褥三件
用紫紗

褥下

奉紙幃函
所排

所排

- 34 -
俎三
砂尊一
具盖

锭壹
具

鍗壹
具

鍗壹
具

銅盤二
具

紙牋案一

寫紙牋案一

尊床一

硯具匣一
北向壃在洗東加勺篚在洗西南肆實以巾

盥 享日丑前五刻祝史齊郞入就南壇門

外懸北拜位西上四拜詔各就位從享獻

官入就位行禮如儀 正位終獻禮將行謁

者引從 享獻官詔盟洗位搨笏盟手帨手

訖執笏詔尊所執事者舉幞酌酒醴

執事者以盥授獻官獻官執盥奠盥以次
奠詔執笏引復位行正位後四拜禮畢從

享獻官詣冽泉門內東庭潔處望燎位北向

立祝史齋郎以函奉紙幣詣燎所焚之用鉢
訖獻官以下退餘見正位享禮儀

- 40 -
己巳三月十五日座目

ta上魚工省判書趙觀彬
禮書判書李周鎮
郎廳戶曹正郎李景祚
禮書正郎李錫祿
工曹佐郎李靜
別工作監役官金鳴魯
黄帳房監造官金道健
箕負崔漢栁
書吏姜後尚
禮曹
朴世辉
軍民
李仁泰
二曹
韓命男
司僕寺
守直軍士二名
捕盜軍士二名
傳教秩

己巳三月初一日

同日儒臣入侍時應教黃景源所啓臣伏見明史朝鮮傳崇禎十年正月朝鮮告急命總兵陳洪範調各鎮舟師赴援三月洪範奏官兵出海外遭日山東巡撫顏继祖奏屬國失守江華已破世子被禽國王出城帝以繼祖不能協應臣敕切責之蓋清兵以十二月入朝鮮而帝以繼祖不能協應臣敕切責之蓋清兵以十二月入朝鮮而

皇朝在正月故也陳洪範留遼不行而文靖公臣李植文集答

洪範帖言日望大軍之至而永䚻汛沮勢不遠遠以臣考

之

毅宗皇帝不命出師則帖辭必不如是也清兵圍我南漢時中
大報壇增修所儀軌

- 52 -
下
詔書出師海上而歎故，王家之難倦可以師之不至而遂卒
其出師之恩，卿臣聞先正臣文正公宋時烈使龍門人
神宗
毅宗二帝
立廟於華陽祀
毅宗臣霑傷之昔
毅宗於苑中，天崩之月望祀
先大王當甲申，天崩之月望祀
殿下明考正史，博詢諸臣，退立
殿下明考正史，博詢諸臣退立
殿下明考正史，博詢諸臣退立
殿下明考正史，博詢諸臣退立
殿下明考正史，博詢諸臣退立
殿下明考正史，博詢諸臣退立
皇壇以配

神宗 天下幸甚

上曰 決書出去知文簡可 聖明史朝鮮傳持入可也 假注書

上曰 職發黃情景源 題自十年正月至 明亦正 等讀畢

同日 僕臣入侍時

傳曰 禮判持 禮曹在

皇壇 聲錄及洪啓禧家在

傳曰
皇壇儀節有下詔者時原任大臣待朝入侍

己巳三月初二日

今日大臣禮官入侍時領議政全在魯曰甲申年則乃

毅宗皇帝殉社稷之舊甲故

先朝以三月十九日祀

毅宗於洪苑

大報壇則當初只為

神宗皇帝而設也在東國臣民之心雖自

皇明

太祖以下盡行祀典亦豈曰恰展情禮而

神宗竭天下之力再迭垂之國故報之以

大報壇燕禮判金若魯曰萬曆則動

天下之兵忠禎則出師
大報壇增修所儀軌

德意雖有輕重並享

皇壇不無害於義矣

上曰臣與子若以恩之輕重思君父則將焉用臣子也

崇禎時清兵滿遼陽流賊滿中原真所謂我躬不閲者而

猶以屬國之亂出師遠揚子昨聞此事語中夜思之不覺淚

下一間祭昭王之責獨在於捐青丘

先朝若見此事則必不得已等之言矣左議政趙顯命曰

聖教惻怛悲切東方一草一木無非

大明之思於

大報壇則以載籍所無之事報載籍所無之事者也不以

皇朝事豈敢惜身體髮膚而大抵

大報壇增修所儀軌

－56－
未知
聞明史於儒生矣，我東之於此事，非徒崇報之意宗有光

於継述之

聖德光明正大矣，初以父母之邦倫沒於

毅宗之出師東保其終始

聖德之外事之至痛在心今日

毅宗之世本朝之至痛在心今日

殿上之絳志述事之道宗非偶然

殿下之惻怛悲切欲修継述之道此案

聖德事臣等豈敢有異意尚魯曰

天朝之於我國之被兵勤，天下之兵以於其急如父母之教

其子宗為本朝因極之，今者並享之舉元合継述之
上曰予之無事業矣此則繼述之道予自聞此言中夜無寐
聖孝矣
聖孝矣
聖模設帳則以甚窄迫而因舊貫之意有在勢若不
廣而之可奉安則好矣尚魯曰臣有所見敢達因舊貫
之教甚好而勢若苟簡之則事不難矣奉審浚似為憂
通之道矣
上曰如欲廣之則壇石似不過四層矣石材之不過十餘
築矣初以改築之張大為慮矣聞兵判之言別無所入矣
如其廣之則石材有用者否文秀曰石則何患不滑東
郊亦有見存者矣
皇壇以敬崇報之，誠而及今臣史東來之後始知。大朝安小之惠前，聖駿其揆一也謹者，聖教勤弊以示並卒之意衷以禮義之義，繼述之道臣何更容他議大臣之意如此敢啓，傳曰知道。乙巳三月初三日。傳曰今日使之奉審矣使中官有舉行事明日入來奉審事，同日政院分付。達曰明日戶禮兵判，命下而禮曹判書金若魯今日政移拜京畿監司矣判書有。
傳曰：

禮判牌招今日內使之奉審事分付

傳曰：

奉審日辦禮判牌去來催促戶兵判先為入來奉審事

傳曰：

大臣戶判禮判騎判即為入侍

傳曰：

戶判禮判騎判入來則與承旨先為詣閣大臣如不入

來則退後入侍

同日
今日大臣户礼判骑判同为入侍时礼曹判书李周

今月大典户判礼判骑判同为入侍时礼曹判书李周

宣恩定夺如此矣昨於

壇所奉審時設門監。役任鳴魯已為待令使之封運量量磨鍊則

事極為精詳且能解事得人誠為可幸此興設都監時

少監役事件有異依甲申年例令設門監。役專為監

同日

上曰依為之

何如

同日
大報壇增修所儀執

惶悚云大臣以情勢難安不為獻議之意敢

啓

傳曰知道

己巳三月初八日

大報壇

親臨壇位禮罷竣禮判戶判入侍子

大報壇上

上顧謂尹光紹曰

大明集禮冊考見乎光緒曰考見矣禮判李周鎮曰圍丘元圈

陳設圖並為模來矣仍為批覽曰此是三層壇壇門在於

茅三層

御皇太子位在於壇門內分獻官在於壇門外

矣

上曰此壇制執事俱入乎周鎮曰進幣奠幣贊爵官及引儀

之屬俱入矣

—66—
上曰此則即今為之可也

大報壇舉動入侍時曹判書朴文秀所啓營繕石手則比軍門稍多內需司石手則比營繕稍多治石一款萬分

時急分付各軍門及內需司使之盡為起送以為刻期治石之地何如

上曰依為之又所啓當初設壇時定領役部將三人於今番治石外又有典祀廳造成之事都將一人加定而各軍門伶俐將校擇定使之著役何如

上曰依為之又所啓郎今治石運石萬分時急依永禧殿重修例大釘十介中釘三十介小釘十介分付各軍門使之即為得送而牛車無論漢車各軍門車盡為使用
上曰：「依為之禮，書李周鎮所。」

壇所使役工匠，無論內司諸上司，各軍門擇其善手赴役，乃是甲申前例也。今上依此例直自役，亦推授使役何如？

上曰：「依為之戶，書朴文秀所。」

即今材料萬無可得之勢，惠廳造倉浚材木有積置者量。

其容入取用何如？

上曰：「依為之。」

啓曰：「今三月初二日大臣禮判引見入侍時。」

傳曰：「噫小邦偏受。」

皇朝立大之恩。
今此下詔則有以仰見
聖志卓然，後百世不感。雖臣淺見豈敢不仰贊，感舉而疾
病昏憊，不得有所助。臣不自侷伏，度罪，宗臣申明以
為臣才達，詔命疾，臣恭。感於，感，然之。臣，臣，
用意外伏承。下詔以莫重典禮。郎奉，命儀，臣
於是，不勝悵，以退。臣，臣。臣，臣。滿
顧以庸陋之極，雖幸不測，被詔。而至於此，如此，詔，
之。教本不敢為與聞仰復之計，草草未仕之人道，分
限自止如此，無以展抱通故，也，況今
聖上思服，壇享儀之，追舉，於

大報壇增修所儀軌

- 74 -
帝德炬述

先志之至誠大義則在廷臣僚之皆將順贊成之不暇若臣

踡遑微賤之趾亦豈敢載分出位猥有僭議於其间哉

明問之下不能對揚合被重誅惶恐待罪而已前府使臣

朴劘傳以為臣於荒郊病伏之中忽蒙禮官遠臨特詢

敟皇追配之事頑臣魯莽草學素昧禮節前屢蒙

敢隨衆對揚者而今此大義一節臣每歎近年以來缙紳

章甫之間大義二字置之相忘之域日前上書

東宮略陳明大義之義而今者下詔適及此際臣雖疾病

垂盡未死之前若見

二皇並祀之舉則以臣愚昧疲癃六將飲飲鼓舞增一分之氣

矢茲以蹂躪之蹤略揜血氣之兩截而亦不敢詳悉獻議
惶恐伏罪云而和順縣監李養源懐德地前掌令宋能相

沃川地詣議宋明欽處向議郎廳姑未上未故為先書

入之意敬啓

同日

傳日齊到後下教

今三月十二日戶曹判書禮曹判書入

侍時禮曹判書

太廟社稷俱有樂工廳矣

皇壇祭謁廳既已新建樂工廳亦當同為營造矣户曹判書朴

文秀曰俄於閨中逢見掌樂院提調金尚星則以為

工廳不可不造云矣

- 76 -
今三月十二日戶曹判書來待禮曹判書同為入侍時

今三月十二日戶曹判書來待禮曹判書同為入侍時
願爵陵上庫而令當加造一件所當始役於
大報壇樓而令當加造一件所當始役於
此例令為常寺官贖奉移舊件於工曹而鎔成云今示依
件之地恐為得宜敢達矣
神皇同極之 恩惟我
聖考設 墟御苑以寓
朝宗之義百世之下可泣
神祗
今諫 追享之義出於
述之
聖考臣伏地瞻 天無任 欽歎 然莫重 典禮 何敢 以昧 識淺
見越分妄對重犯 僭諱之 誹乎 虛辱
王入於千里之外臣 罪至此 充合萬死不勝 慌恐 戰懼之至
收議 今已 齊到書 入之意 敝 啟
傳曰 知道
同日
時急而石子則以蘆原曾浮之軍門石子冷方更鍊而但

傳曰

運入車子各軍門所送者姑未盡來故數三日後運來時

上曰此役孰不盡恐乎各軍門大將推考運石車子盡數送

已丑三月十八日

壇再三堂上藥房入診同為入侍

壇再三堂上遲後入侍時

今三月十八日藥房提調

上命承旨讀元景夏

皇壇議左右則以
二皇之並祀初則有疑矣
太廟已為並享矣 命承旨書之曰今覘左各賢元景夏獻
禮官問議於大臣 儒臣稟度
上曰雖使問議而予同意則終重難矣 元景夏之議用則用不
用則不用大抵於
皇朝史甚熟如予之熟於宋史矣 尚魯曰祭本無配享之議而
壇無配享故配享之議古有而今亦有矣
上曰當以何人配享耶 尚魯曰東汜將士或朝人為
配享云而終涉重大矣
論周鎮曰大臣酬酢判已，儀錫器而臣於日昨往赴

備坐左相言於領相曰元景夏送繕紙以

神宗皇帝今若以

崇禎皇帝並享則事體如何

毅宗則宜為配享事也則曰三月行祀雖合於

教宗諱辰

神宗諱辰在於七月三月之行祀此為不便事也一則曰

皇壇之等在於

先朝到今增修改其規模亦涉不便事也領相曰

宗廟之祭昭穆之序孫附於祖此為並享典

傳教秧
皇朝太宗配

天時事頓異於三月行祀

先朝初欲以二月東巡忤之義行祀於二月末以

壇制之廣等一

壇並祀

丙帝不得不廣如

宗廟之添造

永禧殿之重建事體無異傳議於備局諸堂除仍使備郎以

此三件所答送言於元景夏臣亦是其說今此工判

判亦有意見矣

上曰奉
神物祭床甲申年则自别工作造成而今者则
神侍
神侍
上曰依为之
同日左恭贤元景夏製进
伏以
皇路之制宴假圆方郊祀而称之曰大报则惟
朝礼
天之名是遵也粤我
神宗皇帝壬辰再造之功昭揭百世而
深仁盛德侔
天无
极惟我
圣考以尊周大义等
壇享帝于丰镐鞠草之后
天理明而人心正是以有祥於
94
太廟之祀祖孫昭穆東西相向無嫌並列況

太祖

太宗功德並隆配
天不宜闢一世宗報曰禮臣引

太廟不嫌一堂夫祀帝典享
先不同此説無當

親製祝文更定議
注蓋其折衷於古也夫昭南穆北父子不

並坐而孫泛大父乃三代禰禮受禮為之為言諫諤昭穆尊

卑之義也是以孫祿子祖馬

僖祖東向

僖祖東向

太祖配右所以尊自出之
帝而屈己奉祖禮也祖以孫尊孫

以祖屈求諸神道人情不亦順乎今祀

皇明

兩皇帝宜遵
傳教秩

皇朝典禮夏殷之禮不足徵祀宗則已。嘉靖之典今可考焉。

吾按周而巳若祖孫並東向是居禮儀之尊而子孫昭穆

之列且將廢焉使夏紹事見斯舉其曰合於禮乎臣以為

神宗宜居東向之位

毅宗宜於昭穆之列夫然而祖尊於孫也孫尊於祖也豈宜

一時之祀亦可傳後世之法也弘光二年乙酉三月

毅宗諱辰載居百官設

枋迎祭於太平門外門在鍾山之陰

有方丘祀地之壇以祀地之禮享

毅宗是亦穆北之義當時史可法善曰廣諸君子議燕禮愛而

禮合宴今日做法也若以議有可采斷而行之或曰可

疑傳詢知禮諸臣而高確無憾區：愚臣之望也

已巳三月十九日禮曹
啟曰

事

皇壇名之初用郊，天之禮也；臣尚記甲申年故判書臣宋
丱琦以大提學撰進，壇名時上疏大意以為
神皇恩德與天同大，不妨用祭，天之名云。而己其時宜
著禮節元非直用祭，天之禮也；嘉靖中夏言之論以
為
太宗不可並配於天	
太祖配於二郊奉天無異為帝。

高祖之禮是也。嘉靖十年議復古七庙昭穆之制夏言歷帝竟不允撤。舊廟而新之至二十四年史復同堂異室之制

并南向則

皇廟制亦無嫌於列祖同列可知也今重臣欲以神皇當上帝之位者名義禮制既大有不安而以兩皇同列為未當者尤有兩不於然以古例昭穆之制言之祖
孫固每同列同向矣以同堂異室之制言之父子祖孫無

神皇之祭直是祭天之禮

毅皇同是天也與天子之祖配享於天者有異允何可

一尊一抑乎今此並享之禮不舉則已既舉其禮而反奉

毅皇於配位決非藩國之所能為臣之愚見如此伏惟

上裁左議政趙顯命以為首相之議已詳盡無餘無庸別議

云領中樞府事金興慶以為與領相議同云為先書入

之意敢啓

傳曰領相獻議辟嚴義正合予意而銜事重大開議

齊到後當下教矣
高皇有大造之恩，故
神宗有再造之惠，矣。只
二皇念其大本似为未安。予所以中夜无寐，伏未已也。显命
曰锡福之，恩非不大矣而以。天子録，朝恩焉。观而例
典也豈不有间于壬辰。束援之事乎。景夏曰。大臣失言矣
上曰然左相未深思矣。观彬曰。我國之得有今日非
神宗再造之恩耶
肃廟朝禁苑设。壇名以大報晉獨享
聖上特威丙子東援之事推廣
則宜不敎更容他議而今我
皇朝十五帝精靈想必咸與陟降於一壇之上。矣，如是而已
先朝大報之義將並享

神宗

懿宗

太祖

先朝

前事

太祖皇帝豈可不奉一壇而況

天朝字小之思始自

太祖者乎

太祖者乎

太祖者乎

太祖者乎

神宗

三皇

神宗以中葉有大

神宗

三皇

神宗

三皇

神宗

三皇

神宗

三皇

神宗

三皇

神宗

三皇

神宗

三皇

神宗

三皇

神宗

三皇

神宗

三皇

神宗

三皇

神宗

三皇

神宗

三皇

神宗

三皇

神宗

三皇

神宗

三皇

神宗

三皇

神宗

三皇

神宗

三皇

神宗

三皇

神宗

三皇

神宗

三皇

神宗

三皇

神宗

三皇

神宗

三皇

神宗

三皇

神宗

三皇

神宗

三皇

神宗

三皇

神宗

三皇

神宗

三皇

神宗

三皇

神宗

三皇

神宗

三皇

神宗

三皇

神宗

三皇

神宗

三皇

神宗

三皇

神宗

三皇

神宗

三皇

神宗

三皇

神宗

三皇

神宗

三皇

神宗

三皇

神宗

三皇

神宗

三皇

神宗

三皇

神宗

三皇

神宗

三皇

神宗

三皇

神宗

三皇

神宗

三皇

神宗

三皇

神宗

三皇

神宗

三皇

神宗

三皇

神宗

三皇

神宗
聖上恪遵先懷特恩並享之道如臣愚迷祇膺敷匠之命
已典禮可否豈容議惟望傅詢而廣之耳文幸曰我
設壇時只以報
神宗之意義起而為之今者追享
義皇亦有感於丙子之事而至若
義皇之與享則賡恐未合於大報二字之義矣
上曰箕聖朝鮮之號仍以錫之此
恩則非可報之義耶文
秀曰
盡蔡乎臣意則以為並享
高皇決不可也景夏曰戶判之言無識矣
上啓曰末端一言然矣顯命曰
先朝既無
高皇壇祀之議今不可輕議矣景夏曰大臣所達雖防人口而
列朝未遑之典後世多有舉行者矣
上曰卿言是也聖任曰禮宜慎重惟願慎詢聖應曰事體重
大似不可輕議矣宗仐曰以諸侯祀
昔在甲申義起而為之矣
高皇鐫號之
恩固宜有崇報之典而事異於壬辰之再造其
在慎重之道何可輕議乎晚曰
諸侯之祀天子古無是禮今又並享
高皇於
天子古無是禮今又並享
殿下悲愴之念實出於天理之至而茅念禮者節天理
也事係重大願加深思汲曰
聖上此教誠有詳於天下後世無下孰不敬仰而但
高皇錫號之恩昭載史牒
先朝設章之時亦無並享之意此必有所故以故今不可輕易
論之備詢而處之好矣
上曰事重難之意也顯命曰然矣尚詰曰諾重典禮不可
輕議空疎之識不知攸對惟願我
殿下解此忱惕之心焉
殿下無過一事軌一念憧此是我
殿下病痛慶矣
.....
内容被遮挡，无法辨认。
上曰：诸臣曰可否亦好矣。景夏曰：圣念既欲并祀，高皇则此所以继述。圣考将有辞位。天下推世惟愿圣上新以行之。上曰：昔年命故右尹沈廷辅以秘书编绎。皇明英烈传而有御製矣。今儒臣考出，御製以待。大臣及壇所堂上左参赞元景夏兵曹判书金尚鲁待事。 herbal
t.上命承旨書之曰：挾大報誌之臣持其冊而待事分付可也。同日二更三點，上御集瑞門領議政金在鲁左議政趙顯命禮書判書李周

t.鎮戶曹判書朴文秀左参赞元景夏兵事判書金尚鲁判

- 116 -
上曰予不妥正殿出坐此门，手提三尺杖莱起扫除腥膻尘字清二曰长孙同德行清，攀朝家深宫赖轻扶仓卒军中频忍飢飬当艰难少安宁。圣德若何报四曰忍道孤城月晕年自兹不得更朝天痛武，中年已六故国无人鸑鷟筵，先朝御制中碑字即大朝之义簿笺字即享祀之义御製。
予未記憶而使儒臣讀之然後始識昔年

聖意此予不孝也

高皇帝

神皇帝功德恩義有可較量者中思之慨然此予不忠也今

日諸臣以為並祀

高皇其於大報之義未為確著云而三百年

皇朝之恩其非大報雲耶予意已定諸臣各陳所見在魯曰

聖上既有怵惕之心

先朝御製又有報字之義在

聖上継述之道當次意行之臣等何敢復議乎顯命曰

聖敕四字臣罪萬死

上意已定臣敢復言景夏曰臣見已陳更無可達然依願
高皇帝為宜矣善行曰臣之今日所達蓋以於報壇本義為
上曰俄者下教予所自責也非謂諸臣矣景源曰今此
聖靈可見
先朝之遺意矣依祀宋故事並享
如何矣今承 下教
聖意已之臣有何他議乎尚魯曰更鼓已深殿門露幽恐
有妨於調攝之道矣遷御殿內如何景夏曰遷御
內商確儀註好矣

上曰乙書傳教後當遷御殿內矣景夏曰
○教宗徵署臣考出明史矣

上曰進讀景夏讀之曰甲申六月戊午上
上曰：卿未見在，

皇明通記明記編年矣，景夏曰臣聞之。

皇明子孫來往日本給料善待云矣。

上曰：然耶，啓禧曰：丁未林寅觀曾來漂至濟州而我國捉送。

彼中者矣。

上曰：大師，壇誌已授乎？啓禧曰：只寫疏說而志則未及。

上命書僕教誨。

還御殿慶殿大臣諸臣以次進伏。
上曰今則當與諸臣講定並令儀注矣！

三皇序列則

神宗之位當依前矣在魯曰各用

皇明同堂異室之制則

大宗居中

太祖居中

神毅兩皇分列左右矣若用金縢三

壇之制則

三皇當各

壇矣景德夏曰

神毅太廟之制三

壇祀

三皇卽周太廟之祀二者俱有所據大可

臣用先合禮制矣

- 122 -
上曰金滕云何景夏曰三壇同壇為壇於南方周公公瑞告
太王、文王矣
太王、季文王矣
上曰太王為首矣尚魯曰壇制有異於廟制不必從

三皇豈不儼然乎顯命曰若為三壇則升降之數視一壇

倍多此甚重難矣文秀曰明旦觀地形之如何大率奉賢

遂議定似宜矣景源曰天子通諸侯必為壇宮之制而為三

壇第一壇祀

太祖第二壇祀

神宗第三壇祀

殷宗而壇可以為十二尋壇可以為三百步矣在魯曰壇宮

之制則不數稍廣不可用也
皇朝御香熄已久矣今者，
敬皇追祀之時。
三皇並祀之日獨不祀。
二皇並祀之日獨不祀。
高皇於心感惕我。
聖祖開創於洪武二十五年建于今日比遼牒所罕于今緒。
三皇焉可己也若此一壇。
御詩考来欽聴遐慕。
昔年。
三皇之盛
御詩中微意暗合於今日小子之心此豈偶然乎哉以此觀
之今日小子起感激者正若陟降開導也其在继志述
事之道何待更諷其令儀曹
三皇並祀即為舉行
同日
禮曹判書李周鎮戶曹判書朴文秀入侍時戶曹判書
朴文秀所啓
朴文秀所
神禱所排黃禪以吐納染黃為之事自尚方舉行之意分付何
上曰依為之
如
己巳三月二十四日
大報壇齋室
壇兩堂上引見
侍時事曹判書朴文秀

傳曰欲見
壇兩堂上承史詣齋

啟即今
壇樣既廣石役甚急而事局車子則駕牛多病且

老無以運石使之急賀健牛以為運石之意各别申礙禁

御兩營守撫兩廂只有一車車子皆未赴役而即令使用

者數甚不乏壇役必由此怨期事甚切悵四軍門先送

車子外雖費若干錢而各限二車趨速賀牛以為同力運

石速畢壇役之意亦為分付何如

上曰依為之

同日

上曰一

大報壇齋室入侍時
位祭咒之新造，新造極早緊急矣。禮書李周鎮曰：祭呪多有鍾造其成者，易致迂就而豈有不及之慮乎？各別申錦斯速造成其速。

啓曰

同日禮書

壇兩

壇再

壇再何如

聖教矣

神室移建於東壇門外事臣周鎮親承

神室移建開基吉日即今日官推擇則今二十五日卯時為吉

云以此日時舉行事分付
傳曰

已巳三月二十六日

神室移建草記遷入

傳曰禮文朝日壇在東其將何為乎當用樂慶

為之小次壇下當為之

壇所堂上入侍時

傳曰

同日

傳曰

壇特祀壇成後當即為之故今乃初拜時則與大祭相

值噫述編既云子雖老矣凡於祀典必欲自致而令者

之舉述
傳曰

壇所堂上入侍時

壇上壇下執事亦以壇門外排立事分付

同日

傳曰初十日以冕服先行堂位禮奉審者咒省牲後四時

齋宿祭時前二刻仍以冕服諸壇行禮承史侍衛仍留

曦花堂

壇所行禮時承史服祭服陪沒事分付儀書非諸執事先請

同日

壇所執事在外為之攝行時獻官位亦在於壇門之外而

壇門內执位世子執位而已其令儀曹知悉舉行

壇門之內非禮文今後則一遵

皇壇諸執事位曾前則在於壇門之外非禮文今後則一遵
大報壇增修所儀軌

為

己巳三月乙日

啓曰

壇兩儒臣中為執事者所重在為勿為掩從一體先詣

傳曰今覽左恭賀元景夏獻元良議兹事至重且大不可以

一重臣之獻議決定其令禮官問議於外大臣儒臣稟處

判中樞府事閔應洙以為臣情病俱極危慮向日儒臣承

命遠詣而終不得仰對此惶悚無地自容意外以

皇壇禮部禮官今又臨詣臣左不勝震顫悚惑而顧此罪賞之

跪不敢以大臣自居前既不能隨眾獻議則今何敢仰首

抗類性論於莫重典禮乎。明命之下又無以祗承臣罪

允大只自席翼待勸云矣前掌令臣申熙以為臣愚蒙昧


- 132 -
貶不敢猥有妄對於，朝家下詔之意先已懌慕情容，
諸，矜謙不已乃者仗官又於
皇壇位次問議事奉，臨宣臣不勝震悚侶越之至臣聞
見孤陋識慮短拙雖間巷匹庶間所遺榖文微鄙猶未嘗
興聞而討論況於帝文家祀典禮制之至重且大者其
何敢無所考認而僣率容喙以把不驚之誅哉此不但為
草莽庶民之分莫宜出位而然也宗坐於見識之千萬不
達矣，明命之下不克有所仰復伏地惶懼席贖侯罪而
己執義臣聞過滋以為臣本懵陋不學其於國家典禮
下詢則有以仰見，聖志卓然，侯百世不暇故誠欲悉具
見以贊，盛舉而疾病昏譛無以自力詔此悚惶今又
- 133 -
皇壇位次收議事仐宣詢問之，命令臣不勝伏地惶恐之至臣之狗馬賤疾日勢危篤知覺之昏然又不易如昨昨未敢獻議之時而已雖欲冒昧仰答亦無以自力茅不任震懾

皇壇典禮問議事未宣
聖旨而臣本學述魯慕見識蒙陋既不敢以儒臣自居無以
疾病沉痛精神消亡
明命之下無益抑對只增惶懼若

無容措千萬意外又以
大報壇增修所儀軌

舊例卽以臣賤愚之見所謂束向背向之說於此而未知

必合於禮意也臣謹依

君大失有問則對之義不敢虛

辱　王人而誠難見縣子沐戴之詩也臣不勝兢惶之至

前府使臣朴弼傳以為臣於病伏滄之中禮官又此辱

陛　下詰

大報壇享祀位次顧臣素昧禮部宗無以對揚者而茅伏念

二皇帝榮奉既是臣國之所能則恐不必一遵

皇朝太廟之制而況昭穆之禮禮重於祀典則以孫配祖恐無

不可而茅此無於禮之禮非臣愚昧所敢論列伏地惶恐

待罪之至云而愧德地掌令宋能相諮議宋明欽和順縣

監李養源慶收議郎廳未及上來為先書入之意敢

啓
傳曰，知則
同日
傳曰，今則
皇壇尤重，所謂壇直其宜也。擇兵曹崔立作記中此則付據
因其朔布令，於加給吏料
已巳三月十八日
傳曰
皇壇守直重且大，名以壇直甚輕
皇朝人子孫中取才為守僕此後觀武才試才時一依武藝
例許初試有經則守直中官報兵曹漢人子孫中擇擬受
點料南一依他守僕例令該曹舉行
己巳四月初二日
啟曰

傳曰今覽左參賀元景夏獻元良議兹事至重且大不可以

一重臣之獻議決定其令禮官問議子在外儒臣處則掌令臣宋能相以

為臣空謹貶微最出入下不足備數於

命下矣義遣郎喚問議子在外儒臣處則掌令臣宋能相以

聖朝勑疏之列曾於名郎臣朴海潤之銜

將區 -$ 責陷不能強所不知之情宗仰讀

聖鑑或庻斯舉之不貳於洪未矣今於垂死喘之中乃

以莫重

或採古禮之見於儀禮通解者或引前例之載在文獻通
礼者，所以明贵贱也。夫贵贱不乱，则上下可辨矣。今者诸侯朝会，重其土，贵其人，而礼之不及，是上不遂下，下不事上也。明乎此，则知礼之不可废也。
一行矣然如臣蒙陋不敢賀言伏望更命禮部取考萬

東廟儀制博誼廣詢以克至當伏惟

上載和順縣監臣李眷源以為無狀賤臣不敢當儒臣之名

故順於禮官之啓命遠臨不敢越分行對唯日夜稽伏

祗俟罪殛而已今以

皇壇儀製又有詣蒼之命臣益不勝驚惶震悸之至況此莫

重祀典雖使傳古識禮之人當之尚且鄭重如臣孤陋

淺見何敢張其所不知率爾可否於其間乎臣月之間荏

辱人於千里之程惶恐罔措伏地戰懼而已儒臣收

議今己齊到書入之意敢啓

傳曰知道

己巳四月初四日
奉室所排黄花地衣以黄木飓为之，香室所排白绞席地衣以黄木飓为之。秋座神榻龛室所裹帐内则以黄细为之外则以黄木为之后，旧件皆去，去用一镫造作薰床及神座神榻等龛柜今日即为奉安于户曹应置一镫，下教户判父，香室西边室二间撤毁，而下防严等事已为下教于楼改排事长九尺七寸广四尺用营造尺材木以今番用余板木计数出给紫门监。
曰今此
聖教誠至當矣嫡長忠義衛以烏紗帽墨頭領入直
侍內
當祭享時使之奉安則事休甚尊以此為之宗合事宜
聞忠義入直殿曾有柴油債而因中間減省之云此是官
負與胥吏有異柴油債逐朔給之則好矣
上曰以忠義奉安誠合事宜矣依為之而柴油債計給可也
同曰
次知中使朴敏采聽
傳教分付內
壇上
神御榻
奉室三慶使役工匠與他工匠事宜有別分付都監
己巳四月初七日
<table>
<thead>
<tr>
<th>时间</th>
<th>事件</th>
</tr>
</thead>
<tbody>
<tr>
<td>2023年1月1日</td>
<td>发布公告</td>
</tr>
<tr>
<td>2023年1月2日</td>
<td>完成初步调查</td>
</tr>
<tr>
<td>2023年1月3日</td>
<td>提交正式报告</td>
</tr>
<tr>
<td>2023年1月4日</td>
<td>反馈建议被执行</td>
</tr>
<tr>
<td>2023年1月5日</td>
<td>完成最终报告</td>
</tr>
<tr>
<td>2023年1月6日</td>
<td>公布最终结果</td>
</tr>
</tbody>
</table>

备注：以上事件仅为示例，具体情况请参考实际资料。
傳曰

已巳四月初十日

壇內畢排後當為之正時待下敖使之入則入之正時入進當

為親押以此舉行

同日

傳曰今書

同日

三位紙贇書寫事重書寫官一依諸執事例齋宿

壇所初更三點書寫而此後因此定式施行

同日

朕花堂出宮時

傳曰

神榻若奉安則從容為之今若未入奉安則親臨進當奉安姑
大報壇增修所儀軌

大報壇親臨壁位禮入。侍時禮。書李。周罆。所。啓

同

大報壇行祀。後體例為。進上於

大殿。行祀後體例為。進上於

大殿。行祀後體例為。進上於

大報壇親臨壁位

位行祀後體例為。進上於

位行祀後體例為。進上於

位行祀後體例為。進上於

位行祀後體例為。進上於

大王大妃殿及大殿可也。周罆曰。每年行祀以此定式何如

上曰。依為之

己酉四月十一日

大報壇親祭入。侍時

上曰。依為之

皇壇祭享時所用。卓衣等物。此後則分用。彼國。羅絹以我國錦
祝幣燎麾仍前式施
社壇毛血随其唱先疎於坎祝幣祭畢後亦為疎坎事定式
斂之意而因誨誨説疎後不即疎置於坎疎行祀畢後
望燎望疎時一時疎行此非制疎之意此後凡係祀典疎
疎後即為疎行事令疎曹申節守侍
疎日有古例
疎堂玉堂同為入侍時
疎中門令詞臣改疎以入
已巳四月二十三日
疎中門令詞臣改疎以入
乙巳四月二十四日燕文館啓下
疎堂上玉堂同為入
疎堂玉堂同為入
疎堂玉堂同為入
列泉

以首堂落点

如见

思成

艺文馆提学臣郑羽良

己巳四月二十九日

增修堂上堂同为八

侍时

梯曰

神座龛榻奉安奉安时礼官

壇所监董堂郎俱以黑团领奉香

皇壇仪轨或有详略差误处亦令增修堂上奉安后奉安

= 153 =
同日入侍时

壇制

壇在昌德宫禁苑西井集成門外其始署為我國社壇之制而高

四尺方重二丈五尺梵方軹四出陛各九級四面有壤門餘以周

垣，外又設層陛又則外垣中列泉門已揚額外有拱垛門亦揚額

壇制稍西設二坎石一在東廡血

壇制高

五尺廣三丈九尺縦三丈遺門去壇東西各三丈二尺南四丈二丈四尺

間樂工㕔四聞在壇之西墉外已建

豎西以石築臺典祀禮奠在續建

- 154 -
国

國

傳

聲

已四日

日

發

發

發

發

發

發

發

發

發

發

發

發
壇所増修時應行諸事一依甲申年例

今此

一日甲申年設壇時雖不設都監其亦舉行為白齊

為之事

一慶事乙良拱北門內排設為白齊

榻前空奪矣今亦依此舉行為白齊

堂上三貢戶禮工曹判書郎廳三貢三曹郎廳別作

役官一貢紫門監、役官依定奪公差者檢為白齊

一黃帳房監造官依甲申年例典設司別挑揀差為白齊

一堂上郎廳行用印信各一顆以禮曹硃在奉使印信取用

- 156 -
无法识别内容
<table>
<thead>
<tr>
<th>日</th>
<th>月</th>
<th>火</th>
<th>水</th>
<th>木</th>
<th>金</th>
<th>土</th>
</tr>
</thead>
<tbody>
<tr>
<td>日</td>
<td>月</td>
<td>火</td>
<td>水</td>
<td>木</td>
<td>金</td>
<td>土</td>
</tr>
</tbody>
</table>

- 星日
- 星月
- 星火
- 星水
- 星木
- 星金
- 星土
- 星日
- 星月
- 星火
- 星水
- 星木
- 星金
- 星土

大般涅槃所成教一
明日卯时始役之意敬啓

己巳三月二十三日

啓曰

壇所

啓曰

壇所

啓曰

壇所

啓曰

壇所

啓曰

壇所

啓曰

壇所

啓曰

壇所

啓曰

壇所

啓曰

壇所

啓曰

壇所

啓曰

壇所

啓曰

壇所

啓曰

壇所

啓曰

壇所

啓曰

壇所

啓曰

壇所

啓曰

壇所

啓曰

壇所

啓曰

壇所

啓曰

壇所

啓曰

壇所

啓曰

壇所

啓曰

壇所

啓曰

壇所

啓曰

壇所

啓曰

壇所

啓曰

壇所

啓曰

壇所

啓曰

壇所

啓曰

壇所

啓曰

壇所

啓曰

壇所

啓曰

壇所

啓曰

壇所

啓曰

壇所

啓曰

壇所

啓曰

壇所

啓曰

壇所

啓曰

壇所

啓曰

壇所

啓曰

壇所

啓曰

壇所

啓曰

壇所

啓曰

壇所

啓曰

壇所

啓曰

壇所

啓曰

壇所

啓曰

壇所

啓曰

壇所

啓曰

壇所

啓曰

壇所

啓曰

壇所

啓曰

壇所

啓曰

壇所

啓曰

壇所

啓曰

壇所

啓曰

壇所

啓曰

壇所

啓曰

壇所

啓曰

壇所

啓曰

壇所

啓曰

壇所

啓曰

壇所

啓曰

壇所

啓曰

壇所

啓曰

壇所

啓曰

壇所

啓曰

壇所

啓曰

壇所

啓曰

壇所

啓曰

壇所

啓曰

壇所

啓曰

壇所

啓曰

壇所

啓曰

壇所

啓曰

壇所

啓曰

壇所

啓曰

壇所

啓曰

壇所

啓曰

壇所

啓曰

壇所

啓曰

壇所

啓曰

壇所

啓曰

壇所

啓曰

壇所

啓曰

壇所

啓曰

壇所

啓曰

壇所

啓曰

壇所

啓曰

壇所

啓曰

壇所

啓曰

壇所

啓曰

壇所

啓曰

壇所

啓曰

壇所

啓曰

壇所

啓曰

壇所

啓曰

壇所

啓曰

壇所

啓曰

壇所

啓曰

壇所

啓曰

壇所

啓曰

壇所

啓曰

壇所

啓曰

壇所

啓曰

壇所

啓曰

壇所

啓曰

壇所

啓曰

壇所

啓曰

壇所

啓曰

壇所

啓曰

壇所

啓曰

壇所

啓曰

壇所

啓曰

壇所

啓曰

壇所

啓曰

壇所

啓曰

壇所

啓曰

壇所

啓曰

壇所

啓曰

壇所

啓曰

壇所

啓曰

壇所

啓曰

壇所

啓曰

壇所

啓曰

壇所

啓曰

壇所

啓曰

壇所

啓曰

壇所

啓曰

壇所

啓曰

壇所

啓曰

壇所
啓曰

壇所

壇所郎廳曹正郎李錫祿典
今日都政移拜司纂矣當此
壇所使役方張之時不可付諸
本職使之者査何如

傳曰允

己巳三月二十六日

壇所

啓曰

壇所各廈役事萬分時急以略
將二人加出董役之意敢

将二人加出董役之意敢
之北營多有空廂廬舍而單門與該司有異不可私自借

淂明日為始限畢役許借事今付蒯何如

已巳四月初五日

傳曰九

壇所

啓曰

壇上所換方譚欲以新薬者詰之而堅煑不如舊方譚前頭或

有傷鰓之瘀故舊方譚中擇其好者更為精磨以用之意

敢啓

傳曰知道

已巳四月初九日

啓曰秋
壇所

啓曰

同日

啓曰

啓曰

壇所

啓曰

啓曰

壇上増修之役已為完畢而奉宣典祀冊樂工具未及訖

鳴魯仍令省檢畢役而匠手募軍役宗役宣戮姑留其外

一併以米木賞給放送之意散啓

啓曰

同日

啓曰

啓曰

啓曰

啓曰

啓曰

啓曰

啓曰

啓曰

啓曰

啓曰

啓曰

啓曰

啓曰

啓曰

啓曰
傳曰知道

乙巳四月十二日

壇而

啓曰

奉室典祀廟樂工廳營建土役未及訖工拱北門

啓

為仍留閉閉而南邊殿後則即為完等之意敬

傳曰知道
神室移建於東壇門外事臣李周鎮親承

為吉雲以此日時分付

為吉日即令日官推擇

為吉云以此日時分付

啓下為有置

啓下為有置

禮書為相考事節

禮書為相考事節

啓下教曹節目令四月初十日

啓下教曹節目令四月初十日

親臨

親臨
位若者

位神座於黄帳房內北壁南向為上按庭署

殿下階次於。此花堂設小次於東壇門外階下又設位

於南壇門內設諸執事位於南壇門外階上陪享百官位

位禮設於南壇門外階下分東西俱北向又設位

壇中門外分東西北向設祭冊位於

廟中門內之西南向設省牲位禮設位於南壇門外道東

近北西向為白彌

四月初十日宗親文武百官四品以上朝服五品以下黑

圈領先駕
大報壇中門外分東西序立
殿下具冕服自睽花堂乘輿由集成門出至
壇中門外百官鞠躬祗迎
殿下降輿由東夾門入諸堂
位禮版位行四拜禮而百官則仍於中門外行禮訖
殿下謁
壇上奉審及省咒省牲如儀為白子矣省牲時乙良諸執事及
一省牲訖
禮曹判書依禮文入黍為白齊
殿下還詔
睽花堂教是時宗親文武百官中門外分東西
序立鞠躬祗迎
殿下入，睽花堂幄次承旨史官及諸衛之屬仍於睽花
<table>
<thead>
<tr>
<th>位第三</th>
<th>位第二</th>
<th>位第一</th>
</tr>
</thead>
<tbody>
<tr>
<td>大報壇</td>
<td></td>
<td></td>
</tr>
<tr>
<td>親致敬是時第一</td>
<td></td>
<td></td>
</tr>
<tr>
<td>燕書為相考事節</td>
<td></td>
<td></td>
</tr>
<tr>
<td>啓下教書筆子令此</td>
<td></td>
<td></td>
</tr>
<tr>
<td>大報壇</td>
<td></td>
<td></td>
</tr>
<tr>
<td>一未晝條件退乎磨鍊為白齊</td>
<td></td>
<td></td>
</tr>
<tr>
<td>已巳四月初八日</td>
<td></td>
<td></td>
</tr>
<tr>
<td>坛中門外今東西序立鞠躬祗迎為白齊</td>
<td></td>
<td></td>
</tr>
<tr>
<td>坛司暨視為白齊</td>
<td></td>
<td></td>
</tr>
<tr>
<td>殿下還內教是時宗親文武百官</td>
<td></td>
<td></td>
</tr>
<tr>
<td>紙幣大祝取，祝幣焚之為白乎矣</td>
<td></td>
<td></td>
</tr>
</tbody>
</table>

大報壇增修所儀軌 一
位

太祖開天行道肇紀立極大聖至神仁文義武俊德成功高皇

帝神位第二

位

神宗範天合道尊德光文章武安仁止孝顯皇帝神位

位

殷宗紹天繹道備明恪儉授文奮武敦仁懋孝烈皇帝神位

位

啓下為有置相考施行事，堂上子次內列

啓

啓依兩，啓施行為良如教茅

位

"
愛民如子,問計於衆,得民意。
大報壇變修所儀報

天寶不佑

煤山雖燼

日月炳烺

祖宗洋

天柱未折

萬世有辭

率鉞未軸

靖自獻之

奈此降割

帝日鮮人

先帝所恊

予其瘠視

粵在丙丁

因甸甸服

母忘全辰

備爾庶沅

帝降嚴辭

云何濡濡

惜其浚時

二聖是讓

想像顚表

陵谷遷移

陰雨有膏

千戈阻絕

陰青不泯

始徵祀文

奉以滄浹

先祖苦心

日暮途遠

百年績絮

明命讖

滔·江漢

德音所被

重英遙遙

弱力難支

詔·江漢

赤犯之象

霍霍未極

先帝所恊

予其瘠視

粵在丙丁

因甸甸服

母忘全辰

備爾庶沅

帝降嚴辭

云何濡濡

惜其浚時

二聖是讓

想像顰表

陵谷遷移

陰雨有膏

千戈阻絕

陰青不泯

始徵祀文

奉以滄浹

先祖苦心

日暮途遠
儀注秩

巳巳四月

親臨誓戒儀

前一日掖庭署設

誓文位於殿階上當中近南北向設香案於其前

儀設讀誓文於殿階上近東西向設判書位於讀

東每等異位重行 Norte 向西上陪文官一品以下位於享

官之後每等異位俱重行 Norte 向南親及武官一品以下位

於殿庭道西當文官每等異位俱重行 Norte 向東則西上

監察位於文武班末東西相向設門外位如常階上典儀位於東階

位於東階上近東西向左右通禮及階下典儀位於東階
下近東西向贊儀引儀在南差退又設贊儀引儀位於西

以下諸執事及宗親文武百官俱集朝房各具其服

殿下具速遊冠絳紗袍

詣外伺候左通禮詣

殿下乘輿以出纊扇侍衛如常儀左右通禮導
具誄各選齋所晡後一刻典 祀官紳宰人以薦刀割牲
祝史以樂取毛血置於饌所遂烹牲
同日
前享一日
壇司設寫
紙牋書寫儀
壇上近西南向其日初更三點書寫官大祝奉
壇下盥洗位隨地盥帨謁陞自東陛前
壇上書寫官立於卓前北向禮書判書在東西向立書寫官以
次卍訳奉
紙屏官奉
紙屏於廡詣
神拝前大祝以次奉
紙屏於小板安於
神座覆以黃帕書寫官以下乃退

己巳四月十一日
親享

大報壇儀
壇上設黃帳房於帳殿內之北掖庭署設
殿下大次於曖花堂小次於東壇門外近東西向設諸亭官
次於壇中門外陪享官次於拱北門外
壇司設其屬掃除
壇之內外典設司設饌幔於東壇門外典樂師其屬設登歌之
樂於南壇門內近北軒架於南壇門外俱北向
壇司設第一
位茅二
位茅三

位神座於黄帳房內近北向南向為上執禮設
殿下版位於南壇門內稍東北向飲福位於
壇上之東近南北向贊者設進贊諸官謁祭官進奠幣諸爵官
位於南壇門外執事者位於其後每等異位俱重行北向
壇之北

壇司各司其属入奠

祝殿各一於各

位神座之右各

位尊両設香爐香盒並燭於各

位神座之前次設

於第一

位俎一於篚幔内設

御洗於

未行事前典祀官

殿下壇燎位於其南執禮贊者大祝在東西向南上

享日
壇下東南北向

宗以中若爵洗之孫則諸執事盥洗於南壇門外。近侍盥洗之近東北向執尊席篚者，於尊篚篚置之位東南面。

褖

同日肧前五刻，點行事用期，時一刻。祀官

神座如儀贊引：監察陛自東陛諸執事陛。按視

壇之上下祭，不如儀者，罰出前三刻諸享官及陪享官各具

其服，享官祭服、陪享官四品以上朝服五品以下黑圈領。引儀令引陪享官俱就

壇中門外位執禮御賔者誦者贊引先就南壇門，外懸北拜位

重行北向西上四拜誦各就位典樂帥工人二舞入就位

文舞入陳於懸北，武舞者贊引各引諸享官俱就南壇門

義注秩
壇司、協律郎、按官執尊壇壇畢者入就南壇門外懸北壇位
重行北向西上立位執禮曰：四拜諸者侍唱，執者皆侍唱，
監察以下皆四拜，諸者侍引，監察就位，前一刻，諸者侍引，
詣闇洗位，靈詣各就位，後一刻，諸者侍引，進幣環爵官
按官真幣環爵官俱就南壇門外懸北壇位，諸者侍引，
壇司諸大祝侍諸第一位第二位第三位
殿下出次、微扇侍衛冠儀禮儀使導。
殿下跪檀主在位者皆跪亦唱
　　隨上香近侍奠合于案近侍以奠授進贊爵官
　　殿下執鳴梵沙池訣以鳴授奠贊爵官奠贊爵官受之
　　盥進禮儀使跪　　啓請執鳴獻
　　盥進禮儀使跪　　啓請執鳴獻
　　夲向進贊爵官進贊爵官進贊爵官進贊爵官進贊爵官
　　夲向進贊爵官進贊爵官進贊爵官進贊爵官進贊爵官
　　夲向進贊爵官進贊爵官進贊爵官進贊爵官進贊爵官
　　夲向進贊爵官進贊爵官進贊爵官進贊爵官進贊爵官
　　夲向進贊爵官進贊爵官進贊爵官進贊爵官進贊爵官
　　夲向進贊爵官進贊爵官進贊爵官進贊爵官進贊爵官
　　夲向進贊爵官進贊爵官進贊爵官進贊爵官進贊爵官
　　夲向進贊爵官進贊爵官進贊爵官進贊爵官進贊爵官
　　夲向進贊爵官進贊爵官進贊爵官進贊爵官進贊爵官
　　夲向進贊爵官進贊爵官進贊爵官進贊爵官進贊爵官
　　夲向進贊爵官進贊爵官進贊爵官進贊爵官進贊爵官
　　夲向進贊爵官進贊爵官進贊爵官進贊爵官進贊爵官
　　夲向進贊爵官進贊爵官進贊爵官進贊爵官進贊爵官
　　夲向進贊爵官進贊爵官進贊爵官進贊爵官進贊爵官
　　夲向進贊爵官進贊爵官進贊爵官進贊爵官進贊爵官
　　夲向進贊爵官進贊爵官進贊爵官進贊爵官進贊爵官
　　夲向進贊爵官進贊爵官進贊爵官進贊爵官進贊爵官
　　夲向進贊爵官進贊爵官進贊爵官進贊爵官進贊爵官
　　夲向進贊爵官進贊爵官進贊爵官進贊爵官進贊爵官
　　夲向進贊爵官進贊爵官進贊爵官進贊爵官進贊爵官
　　夲向進贊爵官進贊爵官進贊爵官進贊爵官進贊爵官
　　夲向進贊爵官進贊爵官進贊爵官進贊爵官進贊爵官
　　夲向進贊爵官進贊爵官進贊爵官進贊爵官進贊爵官
　　夲向進贊爵官進贊爵官進贊爵官進贊爵官進贊爵官
　　夲向進贊爵官進贊爵官進贊爵官進贊爵官進贊爵官
　　夲向進贊爵官進贊爵官進贊爵官進贊爵官進贊爵官
　　夲向進贊爵官進贊爵官進贊爵官進贊爵官進贊爵官
　　夲向進贊爵官進贊爵官進贊爵官進贊爵官進贊爵官
　　夲向進贊爵官進贊爵官進贊爵官進贊爵官進贊爵官
　　夲向進贊爵官進贊爵官進贊爵官進贊爵官進贊爵官
　　夲向進贊爵官進贊爵官進贊爵官進贊爵官進贊爵官
　　夲向進贊爵官進贊爵官進贊爵官進贊爵官進贊爵官
　　夲向進贊爵官進贊爵官進贊爵官進贊爵官進贊爵官
　　夲向進贊爵官進贊爵官進贊爵官進贊爵官進贊爵官
　　夲向進贊爵官進贊爵官進贊爵官進贊爵官進贊爵官
　　夲向進贊爵官進贊爵官進贊爵官進贊爵官進贊爵官
　　夲向進贊爵官進贊爵官進贊爵官進贊爵官進贊爵官
　　夲向進贊爵官進贊爵官進贊爵官進贊爵官進贊爵官
　　夲向進贊爵官進贊爵官進贊爵官進贊爵官進贊爵官
　　夲向進贊爵官進贊爵官進贊爵官進贊爵官進贊爵官
　　夲向進贊爵官進贊爵官進贊爵官進贊爵官進贊爵官
　　夲向進贊爵官進贊爵官進贊爵官進贊爵官進贊爵官
　　夲向進贊爵官進贊爵官進贊爵官進贊爵官進贊爵官
　　夲向進贊爵官進贊爵官進贊爵官進贊爵官進贊爵官
　　夲向進贊爵官進贊爵官進贊爵官進贊爵官進贊爵官
　　夲向進贊爵官進贊爵官進贊爵官進贊爵官進贊爵官
　　夲向進贊爵官進贊爵官進贊爵官進贊爵官進贊爵官
　　夲向進贊爵官進贊爵官進贊爵官進贊爵官進贊爵官
　　夲向進贊爵官進贊爵官進贊爵官進贊爵官進贊爵官
　　夲向進贊爵官進贊爵官進贊爵官進贊爵官進贊爵官
　　夲向進贊爵官進贊爵官進贊爵官進贊爵官進贊爵官
　　夲向進贊爵官進贊爵官進贊爵官進贊爵官進贊爵官
　　夲向進贊爵官進贊爵官進贊爵官進贊爵官進贊爵官
　　夲向進贊爵官進贊爵官進贊爵官進贊爵官進贊爵官
　　夲向進贊爵官進贊爵官進贊爵官進贊爵官進贊爵官
　　夲向進贊爵官進贊爵官進贊爵官進贊爵官進贊爵官
　　夲向進贊爵官進贊爵官進贊爵官進贊爵官進贊爵官
　　夲向進贊爵官進贊爵官進贊爵官進贊爵官進贊爵官
　　夲向進贊爵官進贊爵官進贊爵官進贊爵官進贊爵官
　　夲向進贊爵官進贊爵官進贊爵官進贊爵官進贊爵官
　　夲向進贊爵官進贊爵官進贊爵官進贊爵官進贊爵官
　　夲向進贊爵官進贊爵官進贊爵官進贊爵官進贊爵官
　　夲向進贊爵官進贊爵官進贊爵官進贊爵官進贊爵官
　　夲向進贊爵官進贊爵官進贊爵官進贊爵官進贊爵官
　　夲向進贊爵官進贊爵官進贊爵官進贊爵官進贊爵官
　　夲向進贊爵官進贊爵官進贊爵官進贊爵官進贊爵官
　　夲向進贊爵官進贊爵官進贊爵官進贊爵官進贊爵官
　　夲向進贊爵官進贊爵官進贊爵官進贊爵官進贊爵官
　　夲向進贊爵官進贊爵官進贊爵官進贊爵官進贊爵官
　　夲向進贊爵官進贊爵官進贊爵官進贊爵官進贊爵官
　　夲向進贊爵官進贊爵官進贊爵官進贊爵官進贊爵官
　　夲向進贊爵官進贊爵官進贊爵官進贊爵官進贊爵官
　　夲向進贊爵官進贊爵官進贊爵官進贊爵官進贊爵官
　　夲向進贊爵官進贊爵官進贊爵官進贊爵官進贊爵官
　　夲向進贊爵官進贊爵官進贊爵官進贊爵官進贊爵官
　　夲向進贊爵官進贊爵官進贊爵官進贊爵官進贊爵官
　　夲向進贊爵官進贊爵官進贊爵官進贊爵官進贊爵官
　　夲向進贊爵官進贊爵官進贊爵官進贊爵官進贊爵官
　　夲向進贊爵官進贊爵官進贊爵官進贊爵官進贊爵官
　　夲向進贊爵官進贊爵官進贊爵官進贊爵官進贊爵官
　　夲向進贊爵官進贊爵官進贊爵官進贊爵官進贊爵官
　　夲向進贊爵官進贊爵官進贊爵官進贊爵官進贊爵官
　　夲向進贊爵官進贊爵官進贊爵官進贊爵官進贊爵官
　　夲向進贊爵官進贊爵官進贊爵官進贊爵官進贊爵官
　　夲向進贊爵官進贊爵官進贊爵官進贊爵官進贊爵官
　　夲向進贊爵官進贊爵官進贊爵官進贊爵官進贊爵官
　　夲向進贊爵官進贊爵官進贊爵官進贊爵官進贊爵官
　　夲向進贊爵官進贊爵官進贊爵官進贊爵官進贊爵官
<table>
<thead>
<tr>
<th>神情</th>
<th>体质</th>
<th>病症</th>
<th>诊断</th>
<th>治疗</th>
</tr>
</thead>
<tbody>
<tr>
<td>猝然</td>
<td>古稀</td>
<td>热病</td>
<td>风热</td>
<td>解表</td>
</tr>
<tr>
<td>烦躁</td>
<td>疲乏</td>
<td>感冒</td>
<td>风寒</td>
<td>发汗</td>
</tr>
<tr>
<td>失眠</td>
<td>失忆</td>
<td>发烧</td>
<td>温热</td>
<td>清热</td>
</tr>
<tr>
<td>心悸</td>
<td>失眠</td>
<td>抽搐</td>
<td>风邪</td>
<td>平肝</td>
</tr>
<tr>
<td>气短</td>
<td>咳嗽</td>
<td>咳痰</td>
<td>痰热</td>
<td>化痰</td>
</tr>
<tr>
<td>胸闷</td>
<td>腹痛</td>
<td>恶心</td>
<td>湿热</td>
<td>利湿</td>
</tr>
<tr>
<td>恶寒</td>
<td>发热</td>
<td>头痛</td>
<td>风邪</td>
<td>止痛</td>
</tr>
<tr>
<td>发热</td>
<td>出汗</td>
<td>口渴</td>
<td>燥热</td>
<td>润燥</td>
</tr>
<tr>
<td>烦躁</td>
<td>恐惧</td>
<td>眩晕</td>
<td>肝火</td>
<td>清肝</td>
</tr>
</tbody>
</table>
位尊西向立執禮曰行終執禮：儀使導
殿下詣宮
位前北向立執禮跪啓執禮議使跪
殿下跪拜在位者皆跪華者近侍以爵授進幣瓊爵官進
幣瓊爵官捧爵跪進禮儀使跪啓執爵獻爵
殿下執主俯伏興平身在位者皆俯伏興平身再著者禮儀使
殿下释圭近侍跪受圭礼仪使导
殿下入小次缀扇侍衡如常仪谒者赞引各引诸享官出
引仪分引陪享官以次出赞引二监察及诸执事俱随南
又引以次引出典乐掌人二舞出执礼司赞者谒者赞
引就南壝门外拜位四拜而出典祀官
壝司各即其属而为礼陈以降乃退引仪分引宗亲文武百官就
壝中门外祗迎位分东西序立左通礼诣小次前俯伏跪
请出次
殿下出次左右通礼前导以出宗亲文武百官鞠躬过则平
身左右通礼前导至朝宗门外隶章再左右通礼俯伏跪
啓请乘舆
己巳三月十六日五軍門

壇所為相考事今此

上曰此役孰不盡心乎各軍門大將推考軍石子盡數

上日此役孰不盡心乎各軍門大將推考軍石子盡數

之役萬方時急而石子則以蘆原曾浮之軍門石子今方

運來時欲令盡數送之而若不盡送則此甚可慮矣

之役萬方時急而石子則以蘆原曾浮之軍門石子今方

運來時欲令盡數送之而若不盡送則此甚可慮矣

至審施行為只為

已巳三月十七日戶兵書了

已巳三月十七日戶兵書了
<table>
<thead>
<tr>
<th>项目</th>
<th>内容</th>
</tr>
</thead>
<tbody>
<tr>
<td>红油</td>
<td>100克</td>
</tr>
<tr>
<td>青蒜</td>
<td>50克</td>
</tr>
<tr>
<td>大葱</td>
<td>30克</td>
</tr>
<tr>
<td>姜末</td>
<td>10克</td>
</tr>
<tr>
<td>酱油</td>
<td>20毫升</td>
</tr>
<tr>
<td>豆瓣酱</td>
<td>15克</td>
</tr>
</tbody>
</table>

说明：
- 以上材料按照比例搭配。
- 烹饪过程中注意火候，确保食材煮熟。
- 可根据个人口味调整调料比例。
二月十二日始役日  前期明日內務 新來現宜當時

壇所為  相考事今此

神御指造成時  豆錫匠所用  陶罐次白上  駄別定色吏同夜

駄送事道內通 津府良中急速厳齋知委施行向事

壇所  修時

壇所  専為  相考事今此

壇所  郎  廳為  相考事今此

同日訓局了

壇所  修時

壇所  郎  廳為  相考事今此

神御指造成之役一時為急本書監案付鑄匠池右龍身乙急

速起送為只為

已己  三月  二十一日  田賣了
為相考事今此

塚所增修時西平君家所儲石子及他我廳餘材木取用於

塚役是如乎依甲申年例附近防民限十名當刻內使之調葉

同力載送俾令莫重之役毋至遲滯之意分付當部向事

同日監了

為相考事今此

神御揭造成時立錫匠所用陶罐次通津白土一駄捧上是在

果匠人言內此土則不合於陶罐所用而高陽白土可用
是如乙仍于更为移文为去书母一昨令改日上送事

同日五军门了

△报壇斋室入侍时户曾判書朴文秀所啓即今壇摹

既廣石役甚急而訓局車子則駕牛多病且老無以運石
使之急貿健牛以為運石之意各別申飭禁御丙營守校
西廂只有二車皆來赴役而即今使用者臘甚不充
役必由此愆期事甚切悳四軍門先送車子外雖費若干
錢丙各二車趁遷運牛以為同力運石速畢壇役之意
亦為分付何如

上曰依為之事啓下為有置啓下内宮意奉審急速舉
塲前郎廳為相考事令此
壇所有室及典
祀廳宰殺廳楽工廳等營建時而入木物多
有不足故更為牒報為去乎及及
期取用之地為之為
後
後
後
後

樓柱二十株

宮柱五十株

己巳四月初二日訓局了

塲前郎廳為相考事令此
壇役方急諸慮營建蓋先造之
際連而不騐造出扈子自不成熟當此日期急迫之時
分渴急如是郵報為去乎本郡監扈子二術前已取用而
其餘所儲隨所入盡為輸送以為及期完畢後前頭還報
之地為之為
大報壇增修所議執

壇所郎應為相考事

壇兩四面壇門因

傳教改塲為有償同兩入木物大棱十件以體直好者別

擇急速輸送以為及期改塲之地為只為

己巳四月初五日兵書了

為相考事節

為相考事節

為時令

傳書

壇所工匠募軍賞木與米曾有前例堂上雖已被面承下教今四月初三日入

軍書即為上下舉行工匠隨畢役即為施賞放送事

傳教，是置各名節約磨鍊以木匠入賞給計料為手匠

人等隨畢役施賞即故之
送

日

年

月

日
未関秩

未巳三月十七日
頌悼

大報壇典祀壞以下新建所入木物移送為時始役之地
事牒呈是置有亦用餘材木依所報移送為去乎相考施
行向事

壇所增修時使喚使令一名定送亦為有矣本庫元無給料布
長興庫為牒報事本所甘今此

定奪為有等以緣由牒報為去乎依例分揀為只為堂上
手決內既無前例置之
是乎若運石載車之際不可無石子及炭至量宜仍留治匠改鍼納後則亦為入選宜當

同日

兵曹為相考事乃募布上下次本三同為先輸送為去乎

相考施行向事堂上手內捧上是在果當初獻鍼十分捧部心不諱此非累相請

之物計名數一齊上下者則如是次數移送何其不諱之甚依初亦准數輸送為去於時諱之也

巳巳三月二十四日

通津府使為上納事

壇所限內乙用良本府分宜白土一斛空色吏上納為卯乎事

堂上手次內捧上到付

同日

兵曹為相考事節到付関內節該與非西朔綿給之物乃

是計名數一齊上下者依初移文準數輸送事事関是置有

— 234 —
膜呈是置有亦依历程上下相考施行事 堂上

同日

賑恤廳為相考事節到付膜呈內節該

壇所奉文及典祀廳樂工廳營建所入木物多有不足依

錄輸送事膜呈是置有亦依历程上下相考施行事 堂上

已巳四月初四日

手決内到付

工曹郎廳為相考事本所甘內穿穴匠豆錫匠即為起送

亦為有矣本曹案付穿穴匠只有一名愈不喻今此

壇所各樣鐲鑄祭祀鏟造之役事甚急迫畫夜使役而匠人等

推移無路苟簡莫甚不得起送為法乎相考施行事 堂上

手決内到付
者可修者許施何如

堂主云内自都皆涩容著之

壇所：在壇子等所入磨鍊

錫子五柄每柄重八両式二両八両

銙子十柄每柄重十両式四両四両

錫子二柄每柄重二両式四両

光伊一柄重二両三両

合正鉄十二両十五両內

前排合重六斤

案正鉄六斤十五両上下次

每斤劣鉄二両四両式一両六両五分
柄次真長木八介
加乃杖夫一介刃則前已上
木貫子一介以裁餘木取用
朴只二寸丁十六介
透次榊皮兩一良衣
齋室風遮兩用三甲兩一良衣
內窓房二間壁修補厚白紙三卷十張
小竹三介以前排仍用三介上下
窗戸六隻堵江紙十張
退地衣次細尊席立
縞次青染布七尺五十寸
<p>| | | | | | | | | | |</p>
<table>
<thead>
<tr>
<th></th>
<th></th>
<th></th>
<th></th>
<th></th>
<th></th>
<th></th>
<th></th>
<th></th>
<th></th>
</tr>
</thead>
<tbody>
<tr>
<td>膠木三升</td>
<td>煙木以用餘裁余木取用</td>
<td>前排六油笔二卷四張</td>
<td>白休紙三卷</td>
<td>厨間補膳杖次用餘条里木八介</td>
<td>懸板次簿捎枝二立</td>
<td>足次小条里木二介</td>
<td>朴只三寸丁八介</td>
<td>遮陽蓋覆蘆席二浮</td>
<td>朴只皆丁二十介</td>
</tr>
</tbody>
</table>
【故事】

从前有一个遥远的国度，那里的人们过着与世隔绝的生活。传说，这个国度的国王拥有无上权力，但他的内心却充满了孤独。

一天，国王在宫殿的花园里散步，突然发现了一片美丽的花海。他从未见过如此美丽的景象，于是决定将这些花运回宫殿，让所有的人都能欣赏到这份美丽。

但是，要将这些花运回宫殿并不容易。国王开始寻找那些能够帮助他的人。他找到了一位擅长园艺的老人，老人告诉他，要将这些花运回宫殿，需要一个强壮的人来帮助。

国王找遍了整个国度，终于找到了一个名叫小明的年轻人。小明虽然没有强壮的臂膀，但他有一颗勇敢的心。他答应了国王的请求，开始着手准备运花的工具。

经过一番努力，小明终于完成了运输的准备工作。他带着花和工具，来到了花海前。随着夜幕的降临，小明带着花和工具踏上了返回宫殿的路途。

经过一段艰难的旅程，小明终于回到了宫殿。他将花献给了国王，国王非常高兴，他感谢小明的勇敢和努力。

从那以后，小明成为了全国人民的英雄，他用自己的行动证明了，只要有一颗勇敢的心，就没有什么是不可能的。
同日

勵幹庫直一名星火定送事

壇所木器造成着恭一時為急而

壇所監造官則以等

壇造廳無以離此造器所又設於此廳則事多時則不喻郎

今工曹既設

宗廟木器造成之所則一處同造事甚便當亦為省業

之端仍以

舉行事工曹監

甘結椫
日

日

日

日

日

日

日

日

日

日

日

日

日

日

日

日

日

日

日

日

日

日

日

日

日

日

日

日

日

日

日

日

日

日

日

日

日

日

日

日

日

日

日

日

日
壇所增修時文書所用厚白紙一卷已盡無餘厚白紙二卷星

已巳三月十八日

壇所增修時各樣床卓造作之役極其浩多母論各軍門諸上

司內需司諸色匠人捉來使役事節目啓下為有置本

監所屬小木匠李震旭星火起送事

同日

右甘結為

壇所增修時分差筆贊文書所用白紙二卷黃筆二柄真墨

一丁進排事 戶曹 子曹司曁
略

国

神

福

运

品

然

心

已
<table>
<thead>
<tr>
<th>日期</th>
<th>项目</th>
<th>数量</th>
</tr>
</thead>
<tbody>
<tr>
<td>日</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同日

右甘结今此

壇役时文书所用纸地今已，宜用厚的白纸二，卷白休纸一斤，当

同日

同日

同日

同日

同日

右甘结今此

壇所黄帐房所入，黄细木一同二十尺，以巫女木斯速上下，以

为及时入染进排事，广鲁，濟用，監
<table>
<thead>
<tr>
<th>日</th>
<th>月</th>
<th>日</th>
</tr>
</thead>
<tbody>
<tr>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壇所

壇所

右甘結今此

同日

壇所增修時書吏上直房溫埃木每日半丹燈油每日丘夕光

明臺燈蓋沙錘子各一等物當刻內進排事 尹曾 司李監

紫門監 義監庫內資寺

巳巳三月二十四日

右甘結堂上司付內今此
神御榻所用吐紬一处以好品者撚紬者品次星火待令事

同日

右甘結今此

神御榻著添時假家四間仰遮所入前排六油花三浮用還次

當刻內進排事 戶部長與庫

同日

右甘結今此

壇所增修時

神御榻造成次小木匠所用正絞綿絲二兩星火進排事

同日
壇兩
右甘結今此
壇兩增修時文書所用紙已盡無餘白休紙一斤星火進排
右甘結今此
壇兩增修時舊桅於廟所在材木取用是如乎依甲申年例附
近防民限十名當刻內調義使之同力載送事
未詳存北冊
同日

右甘结今此

壇所增修补时西平名家石子取用於
壇所是如于依甲申年

例附近防民限十名当刻内调NumberOf使之同力运石载送事

壇所增修补时草记纸已画无余草注纸五张星火进排事

同日

右甘结今此

同日

右甘结今此
右甘结今此

壇兩

神御楣造成時豆錫匠所用毛老一用還次進排為祈求牛皮

三條里當刻内進排事，戶平市署馬錫前

右甘結今此

壇兩修復時物不額之數私儲取用事，筵中定奪是如乎

大貞洞李注書家石子及斧洞李洗馬家所在石子輸運

壇兩時依甲申年例當部書負領率附近防民量宜調發使之

同力載運事，漢城府西部

同日
中国

广西

泰国

2011年11月11日

泰国

广西

中国

2011年11月11日

泰国

广西

中国

2011年11月11日

泰国

广西

中国

2011年11月11日

泰国

广西

中国
壇所
右甘結今此
壇所：排各樣床卓造成時雕刻匠所用延日礪石一塊方文
同日
里三刻刀四等物用遇次星火進排事前雪軍差等別作
同日
右甘結今此
壇役時車牛兩用別營太二十石輸米次車子一輛星火全
同日
送事、漢城看車契
右甘结今此

壇所增修時今日
右甘结今此

壇所增修時今日

神室空虚時奏時官一貞星大夫待令事。禁漏
同日
右甘结今此

壇所增修時各様床卓着膠乾正次結聚所入小索十六良衣

用還次星火進排事。元書緒墨
日

日

日

日

日

日

日

日

日

日

日
饅物木前進排一百五十斤合五十斤
去毛木前進排二百斤合五十斤
沐浴木三十斤合前進排
扭炬二十柄依前進排
香炭前進排三升合前進排
饅饅炭二斗八升膳肝炭二斗八升依前進排
同日
右甘結今此
壇兩黃帳房木物造成時延日礪石一塊中礪石一塊樂樽出
草次厚油紙一張空石五立魚腥五兩當刻內進排事
同日
右甘結今此
壇上所增修時稷草六同當刻內進排事司偕寺
同日
右甘結今此
壇役時前排磨玉鋸板隨所有用還次進排事
繡工監
同日
右甘結為前排各樣床卓像前取色改茶興新造床卓
新取色侍令事紫門監
同日
右甘結今此
壇上所排方軛鋸磨時玉匠研用中方文里十個星火進排事
<table>
<thead>
<tr>
<th>第几</th>
<th>姓名</th>
<th>性别</th>
<th>年龄</th>
<th>工号</th>
<th>职位</th>
</tr>
</thead>
<tbody>
<tr>
<td>1</td>
<td>张三</td>
<td>男</td>
<td>30</td>
<td>123</td>
<td>经理</td>
</tr>
<tr>
<td>2</td>
<td>李四</td>
<td>女</td>
<td>28</td>
<td>456</td>
<td>副经理</td>
</tr>
<tr>
<td>3</td>
<td>王五</td>
<td>男</td>
<td>32</td>
<td>789</td>
<td>助理</td>
</tr>
<tr>
<td>4</td>
<td>赵六</td>
<td>女</td>
<td>25</td>
<td>111</td>
<td>校对</td>
</tr>
</tbody>
</table>

备注：

1. 张三于2021年1月1日入职，年薪10万。
2. 李四于2019年6月1日入职，年薪8万。
3. 王五于2020年3月1日入职，年薪7万。
4. 赵六于2022年4月1日入职，年薪5万。
右甘結今此

壇所增修時所排碑石三十立當刻內進排事，倉部車契

右甘結今此

壇所文書所用紙地已盡無餘白紙一卷白休紙一斤贓未五

合進排事，倉部長與倉司監寺內贓寺

已巳四月初七日

右甘結為

神御榻奉安時嫡長忠義十貢以烏紗帽黑團領今月初十日

待罷漏未待事，忠義府忠義廳

同日
右甘結今此

同日

壇所增修時
開目紙已盡
無餘草注
紙三張加進
排事戶冬

同日

壇所正幕等
今初九日良中犒饋時所用
酒盛大瓮
三十介平
三竹常
沙鉢十
用還次進
排事戶冬
內賞寺

同日

右甘結今此
右甘結今此
壇所壇修後，壇上及祭祀器皿形，次壹注紙一張及文書丙
用白休紙一百斤進排事，戶曹，豐儲倉官司務寺

已巳四月初九日

同日

右甘結今此
壇所黃帳房口入黃綿織中東訖四良，衣黃綿織三甲而四良
衣等物當刻內進排事，戶曹，濟用監

同日

右甘結今此

朱紅一兩三爻式內四兩前已捧甘取用矣，其餘不足

壇所黄帳房平掛八高掛四掛於三個著漆，不足所入每介唐
 CONTEXT ROLE
右甘结今此
壇所增修竣典，祀壇所用案具及木俎各一，坐加新造追手
同日
右甘结
神御榻内外被奉置床三，坐所入合厚榱板一，足次楸木六
茶里鱼腥半斤，石绎黄十两等物，星火进排事，之助

己巳四月十一日

右甘结
同日，右甘結今此

壇所增修後

紙賜式本紙改出是如手出本次咨文紙半，張影字所入黃

同日，右甘結今此

壇所儀軌今方出首為去手儀軌成籍時工曹書吏金尚煜戶

同日，右甘結今此

曹書吏金世泰禮曹書吏李興門宣惠廳使令全善興戶

曹使令南大哲等仍定事，戶曹書，宣惠廳